



남원시, 제4기 자봉센터 운영위원회 첫 정기회의

남원시는 21일 남원 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제4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위촉식과 함께 첫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제3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에 따라 지역 내 자원봉사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새롭게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하기 위해 엄선된 위원들은 향후 2년간 남원시 자원봉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남원시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제96회 춘향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 운영 계획 △20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지정에 따른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등이 상정되었으며,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2026년 산악사고 안전대책 본격 추진

남원소방서는 봄·가을철 등산객 증가에 대비해 신속한 초기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2026년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다양한 산악사고에 대비한 전문 대응 역량을 조성하고, 안전한 산악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2026년 산악사고 안전대책은 과학적 데이터 분석과 기관 간 공조 체계 강화를 핵심으로 추진된다.

소방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위험지역을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 확립 남원소방서와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위험지역 안전점검을 실시해 유기적인 대응망을 구축하며, 맞춤형 비대면 안전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등산객 대상 안전·예방수칙 교육을 강화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경찰서, 인력시장 방문 특별교통사고 예방 홍보

김제경찰서(서장 박승준)는 21일 새벽, 김제시 소재 부성종합인력·가나안인력 등 인력사무소 방문하여 4~6월 본격적인 농번기 소형화물차 인력 수송 사망자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대상 화물차에 인부 수송 행위를 양도해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홍보활동은 김제시 인력사무소 17개소를 방문하여 인력 수송 시 승차정원 준수·안전운전 등 준수·안전수칙 교육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수 유입이 예상되어 김제시(농업정책과)와 협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을 파악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배정된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인력이동을 위한 개인 화물차 이용 단속·계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삼천신협, 전북·전국 경영평가 '2관왕' 달성

전북신협 경영평가 시상식서 '종합대상'·전국 조합 경영평가서 '전국 2군 대상'을 입증했다.

전주삼천신협이 전북과 전국 단위 경영평가에서 동시에 최고 성과를 거두며 '2관왕'에 올랐다.

전주삼천신협은 지난달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신협 경영평가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신협중앙회가 주관한 전국 조합 경영평가에서도 '전국 2군 대상'을 차지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경영 역량을 입증했다.

1993년 전주파티마신협에서 분할 설립된 전주삼천신협은 전국에서 유일한 분할 조합이라는 이력을 갖고 있다. 한때 재무구조 악화로 경영 개선 권고를 받기도 했지만, 임직원과 조합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2017년 정상화에 성공한 이후 빠른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말 기준 총자산은 약 3,200억 원으로, 2019년 1,354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연체율을 1%대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자산 건전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H.O.P.E' 경영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행복(Happiness), 원터(Oasis), 자긍심(Pride), 혁신(Evolution)을 핵심 가치로 삼아 조직문화



전반에 적용해온 것이 성장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지를 활용한 주거환경 개선 '행복한집 프로젝트', 소상공인 지원 '어바바 플랜', 아동 대상 멘토링 사업 등을 통해 지역과의 상생을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도 선정됐다.

최태일 이사장은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직원들의 창의성과 역량을 끌어낸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조합원의 신뢰에 보답하며 전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국민연금, 고령층 '국민연금 안심배달' 서비스 도입

집배원이 방문해 연금 지급·안부 확인

국민연금공단과 우정사업본부가 고령 수급자를 위한 맞춤형 연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두 기관은 4월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안심배달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강원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내 19개 군 지역에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집배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연금을 전달하고, 수급자의 건강 상태와 안부를 확인하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수급자는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연금을 자택에서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



회적 돌봄 기능까지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순 전달을 넘어 안부 확인까지 함께 이뤄져 고령층 안전망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체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기관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향후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상근기자



제50회 지사면민의 날 기념 한마당 큰잔치 성료

임실군 지사면은 지난 18일 지사복지항유관에서 제50회 지사면민의 날 기념 한마당 큰잔치 행사를 심민 임실군수, 이상식 면장, 기관·사회단체장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50회를 맞이한 뜻깊은 해로, 그 의미를 더하며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

지사면 농악단 공연으로 시작된 행사의 기념식에서는 효열장에는 김한근 씨, 공익장에는 변현섭 씨, 애향장에는 서인배 씨, 봉사장에는 최길호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기념식 이후 진행된 한궁경기는 주민 간의 친목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며, 주민들의 숨은 끼와 기량을 펼치는 노래자랑 및 경품추첨 등이 이어져 주민과 향우가 한 자리에서 어우러졌다. /임실=진충영 기자



제23회 정읍고부면민의 날·제33회 한미음축제 성황

정읍시 고부면은 지난 18일 동학울림센터에서 '제23회 고부면민의 날 및 제33회 한미음축제'를 개최하고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등 내외빈을 비롯해 주민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는 영주농악단의 사물놀이 공연으로 활기차게 시작됐으며, 고리걸기와 투호 등 전통 민속경기와 고고장구 공연이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기여한 주민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주민의 장은 공익장 이재춘 씨, 효열장 신선영 씨가 수상했으며 정읍시장 감사패는 박정자·신백철 씨, 정읍시장 표창장은 신재인 주무관이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 표창장은 김동욱 씨, 시장의 표창장은 강성철 씨, 정읍시체육회 표창장은 유명만 씨가 각각 수상했다. 식후 행사에서는 품바 댄스와 가수 공연, 주민 노래자랑이 펼쳐졌다. 특히 송아지 4마리가 경품으로 마련돼 많은 주민의 참여가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민원담당 공무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부안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5일간)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 82명을 대상으로 1대 1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민원인의 폭언·폭행·협박 등 특이 민원과 전북 민원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해소하고, 공직자들의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신건강척도검사 등 사전검토를 통한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진단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상담을 실시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신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후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